

2019 서순실 심방 본풀이 채록

이공본풀이

이공본풀이>들어가는 말미

이공스천도상국님~, 난산국이웨다에~.1)

이공본풀이>본풀이

옛날 옛적 청계왕도 삼시당(上試堂), 백계왕도 삼시당, 흑계왕도 삼시당, 원진국이 데감님 살읍데다. 원진국 데감님이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로 잘 살고, 김진국이 데감님이~ 가난공서 사난, 남박세기²⁾ 파명 그날, 그날 구명도식(求命圖食) 해연 살읍데다. 남녘 간에 아기 엇언 호이탄복(後悔歎服) 허난에~ 동계남(東觀音)은 은중절, 서계남(西觀音)은 상세절, 남계남(南觀音)은 녹농절, 북하산은 미양안동절 푼처³⁾ 직헌 데서(大師)님은 하늘 7른⁴⁾ 굴송낙, 지에 7른 굴장삼.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롬준치,⁵⁾ 둘러메고 백팔염주(百八念珠) 목에 걸고 손에 단주(短珠)를 심고 하늘 7른 금주랑 철쭉데를⁶⁾ 짚언 권제(勸齋) 받으레 금세상에 7립데다. 촌촌(村村), 각리각리(各里各里) 동으로 들언 서으로 나고, 서으로 들언 동으로 나고, 뒤로 받을덴 흡으로 받았구나. 원진국 데감님 짓알로⁷⁾ 도7리며,

“에~, 소송은 절이 뵈네다.”

“어느 절당에 데섭니까?”

“동계남은 은중절, 서계남은 상세절, 남계남은 녹농절, 북하산은 미양안동절 푼처 직헌 데섭네다.”

당도 파락(破落)이 뵈고, 절도 파락이 뵈언 권제삼문(勸齋三文)을 받아당 헌 당, 헌 절 수리하고 멩 없는 이 멩을 주저. 복 없는 이 복을 주저. 생불(生佛) 없는 7순(子孫)은 생불을 주저. 권제(勸齋) 받으레 네렛습네다에~.”

원진국 데감님 권제를 네어 주난, 권제 받앙 나가젠 허난,

“데서님아, 원천강(袁天綱)⁸⁾ 스주팔자(四柱八字) 고남⁹⁾ 헤어 봅서. 원천강 스주팔자에 아기 엇언 무유유화(無爲而化)¹⁰⁾ 허렌 훈 팔저파? 아니민 불공 드령 아기 잇이렌 훈 팔저파?”

원천강 스주영, 단수육갑(單數六甲) 오용팔관(五行八卦) 짚언 곤는 말이,

“아기 엇영 무유유화 허렌 할 팔잔 아납네다.”

이 말을 곱아 두언, 데서님은 권제를 받앙 소곡소곡¹¹⁾ 먼 정더레 나고갑데다에~.

1) 난산국이웨다에~: 본디 태어난 곳과 그 내력입니다.

2) 남박세기: 나무바가지.

3) 푼처: 부처.

4) 7른: 가리는.

5) 아강베포 직부잘리 호롬준치: 종이 들고 다니는 자루.

6) 철쭉데를: 죽장(竹杖)을 지팡이를.

7) 짓알로: 아래로.

8) 원천강(袁天綱): 당나라의 점술가. 여기서는 점술서의 뜻으로 쓰임.

9) 고남: 가늌.

10) 무유유화(無爲而化): 노자(老子)의 ‘무위이화(無爲而化)’에서 의미가 변화된 말.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되다’가 본디 뜻이나 여기서는 무후이화(無後而化)의 뜻으로 쓰임. 즉 부부간에 자식이 없는 것.

원진국 데감님은 김진국이 데감님하고 친헌 지간이난, 김진국이 데감님을 좇양 간,

“데감님아, 읍서. 우리 절간 법당 백일 불공드리레 가게~.”

“난 가난공서 사난 못가쿠다.”

원진국은 데감님 부제로 잘 사난 아기가 기업구나~. 김진국 데감님은 가난공서 사난 아기생 각 엇엇구나. 하도 권유를 헤여가난,

“경 허건 읍서. 가게.”

원진국 데감님은 강모딘 강나룩(乾稻),¹²⁾ 수답(水畓)이는 수나룩(水稻),¹³⁾ 모답이는 모나루 상백미(上白米), 중백미(仲白米), 웨백미(下白米) 착쌀 엇이¹⁴⁾ 출려 간다. 가삿베도 구만 장, 송낙베도 구만 장, 드릿베도 구만 장, 물명지(水禾紬), 강명지, 세양페, 세미녕¹⁵⁾ 출려 놓고, 김진국데감님은 갓영 갈 거 엇이난 메쌀¹⁶⁾ 훈 뒤 갓영 동계남 은중절 높은 절간 법당 백일불공을 갑데다. 갓영 간 건 은분체에¹⁷⁾ 도금¹⁸⁾ 올령, 상탕(上湯)에는 메를 짓고, 중탕(中湯)에는 모욕(沐浴) 하고, 하탕(下湯)에는 수족(手足) 씻천,¹⁹⁾ 돌아 올 땐 월광(月光)님 지어갈 땐 일광(日光)님 충헌입니다예~. 당돌님 세양상 받안 읍던 옥계천신님도 사나사나, 백일불공 드렸구나. 데서님이 꼬까마 은저올데²⁰⁾ 갓언 나오란 곤는 말이,

“원진국 데감님아, 김진국 데감님아, 오늘은 백일제 되는 날입네다. 꼬까마 은저올데 저우리 영 백 근이 차민 아들이 나고, 백 근이 못 차민 여즈식이 날 듯 헉십네다.”

원진국 데감님 꼬까마 은저올데 저우리난 백 근이 못 찾구나.

“원진국 데감님아, 출령 온 건 하영 출려 오랏우다만은 정성이 부족허난 여즈식 탄생허쿠다.”

김진국이 데감님은 꼬까마 은저올데 저우리난~, 메쌀 한 뒤 갓영 가도 정성이 백 근이 찾구나.

“김진국 데감님아, 출령²¹⁾ 온 건 엇어도 정성이 백 근이 차난 아들이 날 듯 헉십네다. 네려 강 합궁일(合宮日)을 받양 천상베필(天上配匹)을 무어봅서예~.”²²⁾

부처님전 절 삼베(三拜) 올리고, 금마답²³⁾ 수리 두고²⁴⁾ 올레에 막음 두멍 네령 오명 말을 걸어간다. 원진국 데감님이 곤는 말이,

“김진국 데감님아, 우리 아덜덜 나거들랑 이성제(義兄弟) 하고, 톨도 나건 이성제 하게 어떻 헉파?”

“기영 흡서.”

“망간 중에²⁵⁾ 우리가 톨나고 아들 나건 읍서. 우리 사둔(查頓)허게~.”

11) 소곡소곡: 거침없이 앞으로 걸어가는 모양.

12) 강나룩: 발벼의 일종.

13) 수나룩: 논벼.

14) 착쌀 엇이: 쪼개진 쌀 없이.

15) 세미녕: 무명.

16) 메쌀: 제사나 불공 때 신위 앞에 올릴 밥을 지을 쌀.

17) 은분체에: 은부처예.

18) 도금: 돈(錢)과 금(金).

19) 씻천: 씻어서.

20) 꼬까마 은저올데: 까마귀 주둥이 같은 갈퀴에 달아매도록 만들어진 은저울(銀衡) 대추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함.

21) 출령: 차려서.

22) 무어봅서: 뵈어보십시오.

23) 금마답: 마당.

24) 수리 두고: 잠가서 봉한 표지를 하고 흔히 ‘감봉수레 하고’라고 말함.

언약(言約) 약속 헤였구나. 집인 오란 합궁일 받아간다. 천상베필 무으난 원진국 데감님은
똥애기 납데다~. 이름은 월광아미로 이름 지와간다.

김진국 데감님도 합궁일을 반안 천상베필 무으난 아덜이 납데다. 이름은 사라도령 이름을
지왔구나~.

“우리가 절간 법당에 내려오멍 약속허난, 읍서. 우리 똥 나고 아덜 나난 구덕흔서²⁶⁾ 하게.”
“기영 흡서.”

구덕흔서 헤여간다.

헌 설, 두 설, 열다섯 십오 세가 당헤여 가난, 김진국 데감님이 원진국 데감 집이 중메(仲
媒)를 갑데다. 원진국 데감님은 허락(許諾)을 아니 험데다.

“무사 허락(許諾) 아니 험네까?”

“가난한 집이 우리 똥 아니 보네쿠덴.”

허난, 헌번 돌아오고 두 번 가도 돌아오고 아니 똤로구나. 흐를날은 월광아미가 곤는 말이,
“아바님아, 무사 허락(許諾) 아님이파?²⁷⁾ 우린 구덕흔서 헤였우게.²⁸⁾ 잘 살아도 나 팔져, 못
살아도 나 팔져, 나 복력(福力)이우다. 난 아무 집이도 중메 들어 오라도 절데 시집 안 갈 거
우덴.”

허난, 아난 게 아니라 중메 들어 오라도 아니 간다. 사라도령은 어떻 허리 이 밤, 저 밤, 야
사생경, 깊은 밤이 똤민 원진국이 데감님 깊은 즘을²⁹⁾ 자민 월광아미 즘자는 창 무똥에³⁰⁾ 강
앗아 잇당 붉아³¹⁾ 가민 집더레 오고 어둑어 가민 강 앓앗다건 붉아 가민 집더레 오랏구나. 흐
를날은 원진국 데감님 일어난 보난 사라도령이 앓앗단 오꽃허게³²⁾ 일어상 가난,

‘이거 어떤 일인고 이젠 아니 똤로구나.’

허락(許諾)을 헤였구나.

이바지 오논고, 신랑이 오논고, 신부가 가논고, 사라도령 월광아미 살림은 사난 아긴 베엠후
나. 월광아민 월광부인이 똤고, 사라도령은 사라데왕이 똤어 간다. 하늘 옥항에선 서천꽃밭디
맹진국할마님 불리꽃디, 가지꽃, 생불꽃, 환생꽃, 번성꽃을 싱건³³⁾ 놔 두민 검눌꽃³⁴⁾이 똤어
가난 옥항상저(玉皇上帝)님전에 등수(等訴) 드롭데다.

“옥항상저님아, 서천꽃밭데 검눌꽃이 똤어 가난, 꽃감관(花監官)³⁵⁾ 꽃생인 임명(任命)헤여
줍셴.”

허난, 하늘 옥항에서 천할³⁶⁾ 굽어 보난 사라도령이 사라데왕이로구나. 이만 허민 서천꽃밭
꽃감관 살만허다.

“어서 꽃감관 살레 오렌.”

헤여건 부영세 젓늘게에³⁷⁾ 편지답장이 오랏구나. 흐를날은 사라데왕이 근심 걱정 허난 월광

25) 망간 중에: 만약에.

26) 구덕흔서: 자식들이 요람에 있을 때 부모들이 맺은 자식들의 혼인 약속.

27) 아님이파: 안합니까.

28) 헤였우게: 했습니다.

29) 즘을: 잠을.

30) 무똥에: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에.

31) 붉아: 밝아.

32) 오꽃허게: 가만히 있다가 선뜻 하여 경황이 없이 불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을 나타냄.

33) 싱건: 심어서.

34) 검눌꽃: 시들어 가는 꽃.

35) 꽃감관: 서천꽃밭의 주화(呪花)를 관장하는 벼슬.

36) 천할: 천하를.

37) 젓늘게에: 날개에.

부인 곧는 말이,

“사라데왕님아, 어떻게연 근심 걱정 해염수파?”

“하늘 옥항에서 꽃감관 살레 오렌 임명장이 오락우덴.”

허난,

“어서 갑서.”

출려 간다. 월광부인 곧는 말이,

“나도 7치³⁸⁾ 가쿠다.”³⁹⁾

아긴 베연 테독 7치⁴⁰⁾ 베는 불렀구나. 홀목 심언⁴¹⁾ 서천꽃밭더레 꽃감관 살레 가단 보난 발에 발병 난 걸음을 걷지 못한다. 이 밤, 저 밤, 야사생경이 됐었구나. 깊은 밤이 어욱폐기⁴²⁾ 으지(依支)헤연 무정눈에⁴³⁾ 즘을 잤구나. 듯날 아척은⁴⁴⁾ 천하독(天皇鷄)이 목을 네리고, 지에 독(地皇鷄)이 목을 들린 즘지반반⁴⁵⁾ 울었구나. 일어난 월광부인 곧는 말이,

“사라데왕님아, 저 독은 어디서 우는 독입네까?”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연들어 만연장제 집에서 우는 독입네다.”

“낭군님아, 난 이젠 베는 불고 발이 발병이 나난 더 이상 못 걸으쿠다. 저 집이 강 나 몸종으로 풀아 두영⁴⁶⁾ 어서 갑서예~.”

사라데왕, 월광부인 홀목 심언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연들어 만연장제 사는 집이 먼 올레 들어상,

“몸종 삽서. 몸종 삽서.”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연들어 만연장제 천하거부제(天下巨富者)로 잘 사난,

“큰년애기야, 먼 올레 나고 보라. 몸종 사렌⁴⁷⁾ 험저.”

먼 올레 나간 들어 왕 곧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저 종 사지 맙서. 우리 집 지둥 굽⁴⁸⁾ 다 빼영 망헉네다.”

“아이고~ 경 허건 셋년아~, 나고 보라.”

셋년이 들어 왕 곧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저 종 사지 맙서. 우리 지둥 굽 다 보고 우리 집 망헉네다.”

“아니 웰로구나. 족은년아, 나고 보라.”

간 오랑 곧는 말이,

“애긴 베엿우다만은, 애긴 나거들랑근에 종으로 부리고, 아버지 동지, 셋달 긴긴 밤이 품사람이라도 품어사 웰 거 아니우파?”

몸종 사렌 허난,

“어머은 얼마 받으쿠과?”

“돈 백 냥~ 받으쿠다.”

38) 7치: 같이.

39) 가쿠다: 가겠습니다.

40) 테독 7치: 큰 향아리같이.

41) 홀목 심언: 손목 잡아.

42) 어욱폐기: 역새 포기.

43) 무정눈에: 무정하게 감기는 눈에.

44) 아척은: 아침은.

45) 즘지반반: 고요한 밤에 들리는 닭 따위의 울음소리.

46) 풀아 두영: 팔아 두고서.

47) 몸종 사렌: 몸종 사라고.

48) 굽: 밀바닥.

“배 안에 애긴 얼마 받으쿠과?”

“은 백 냥 받으쿠다예~.”

몸종을 샅구나.

“이 국(國)에 법(法)은 어떻협네키?”

“우리 국에 법은 부베간(夫婦間)이⁴⁹⁾ 헤어지젠 허민, 밥 한 상(床)을 출려 줘네다.”

“늦인덕정하님아, 밥 한 상 출려다 주렌.”

허단 보난 밥을 출런 먹엇구나.

“설운 낭군님아, 벤 애기 이름이나 지와 텡 갑셴.”

허난,

“아들랑 낱걸랑 신산만산 할락궁이로 이름 지우곡, 딸란 낱거들랑 신산만산 할라덱이~.”

이름을 지와 두곡 가젠 허난,

“본메 본짱을⁵⁰⁾ 주어 텡 갑셴.”

허난, 상동낭에 용얼레기⁵¹⁾ 반착⁵²⁾ 갈란 주난, 월광부인 콤에⁵³⁾ 콤언 사라도령은 꽃감관 살레 서천꽃밭더레 도올름데다예~. 그날 저녁은 당허난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연들어 만연장제 오란 문을 절메 증갓구나.

“이 문 올렌.”

허난,

“이 국에 법은 어떻협네키?”

“우리 국(國)에 법(法)은 벤 애기 나상 몸 허락(許諾)협네키다.”

그냥 돌아갓구나. 벤 애긴 나난 아덜이 납데다. 아덜 이름은 신산만산 할락궁이 이름을 지와 간다. 그날 저녁은 당허난,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이 국에 법은 어떻 협네키?”

“벤 애기 난 기어댕겨사 몸 허락(許諾)협네키다.”

돌아갓구나. 할락궁이가 기어댕겨 간다. 그날 저녁에 또시 오란,

“이 문을 열라. 이 문을 올렌.”

허난,

“이 국에 법은 어떻 협네키?”

“기는 애기 걸영 마당에서 강알에⁵⁴⁾ 작데기 놓아건 물놀이 헤여가사 몸 허락(許諾)협네키다~.”

할락궁이가 마당에서 작데기 강알에 낱 물놀이⁵⁵⁾ 노념놀이 헤난 그날 저녁인,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이 국의 법은 어떻협네키?”

“몸 허락(許諾) 안 헤켤.”

허난,

“이 년, 저 년, 죽일 년, 잡을 년 데동통편에 청뎃섭에 목 걸령 죽일 년아.”

뎃⁵⁶⁾ 벌역(罰役)을 시겨간다~. 께진 향아리에 물을 질어 올렌 허민~, 월광부인님 허를 저물

49) 부베간이: 부부사이가.

50) 본메 본짱을: 증거가 되는 물건을.

51) 상동낭에 용얼레기: 상동나무로 만든 얼레빗.

52) 반착: 반쪽.

53) 콤에: 품에.

54) 강알에: 가랑이에.

55) 물놀이: 말(馬)놀이.

양 물을 허벅으로 지어단 비우민 혈어 비고, 비우민 혈어 불고~ ,흐를날은 할락궁이가 산디 지께기로⁵⁷⁾ 늦을⁵⁸⁾ 꼬안 향아리 굽더레 굽이굽이 사리난 향아리에 물이 ㄱ득앗구나.⁵⁹⁾

‘영 해도 아니 웰로구나.’

멜망일(滅亡日), 고초일(枯焦日) 날에,

“할락궁이야, 피씨~, 좁씨 석 삼 닷 말 칠 세 오 리⁶⁰⁾ 갖언 강 뿌련 밧 불러 됴 오렌.”

허난, 멜망일, 고초일 날에 멩에 진 밧디 간 좁씨 뿌려 됴 오난,

“그 좁씨 강, 좃언⁶¹⁾ 오렌.”

헤연 멜망일에 강 뿌려부난 비세 ㄱ치⁶²⁾ 울멍, 방울방울 좃으단 보난 하나가 떨어 지엇구나. 좃단⁶³⁾ 보난 게미가⁶⁴⁾ 물언 들어감구나. 뽉허게⁶⁵⁾ 시리 발로 불르난⁶⁶⁾ 입에 물엇던 거 멜록 허게⁶⁷⁾ 바꾸난⁶⁸⁾ 게미 허리는 좁아진다. 그 걸 갖언 오난에 흐를날은,

“어머님아, 우리 아방은 누게꽈?”⁶⁹⁾

“아이고 나 아덜아, 니네 아방은 제인들어 제인장제, 만연들어 만연장제 니네 아방 아니가.”

“우리 아방 ㄱ뜨민 무사 어멍 됴 벌역(罰役) 시기고, 나도 됴 벌역(罰役) 시깁네까?”

바른말 아니 허난, 흐를은 비가 어실어실⁷⁰⁾ 오랏구나.

“어머님아~, 오늘은 비가 오람수다. 콩이나 보까 볍서~.”

“콩은 어디 시니?”⁷¹⁾

“장막(帳幕) 걷어 볍서.”

장막을~ 걷언 보난, 콩 흐 됴 잇엇구나. 그 걸 갖디당 정제 오란 솟뚜쟁이 가리천⁷²⁾ 콩을 보까 간다. 와닥딱 와닥딱 콩을 보까 가난,

“어머님아~, 올레에 강 볍서. 아방 불림수다.”

가 보난에 밥자,⁷³⁾ 국자, 남술,⁷⁴⁾ 솔박이로구나. 뒤악세기,⁷⁵⁾ 모지락 비치락,⁷⁶⁾ 문딱⁷⁷⁾ 갖당 방석 앞에 깔아 앓앗구나.

“어멍 흔적 읍서. 어멍 흔적 읍서. 어멍 흔적 읍서.”

“무사?”

56) 됴: ‘힘든’ 혹은 ‘어려운’ 정도의 뜻 ‘됴다’는 마음이 몹시 곱고 인색하다는 의미.

57) 산디 지께기로: 발벼의 짚으로.

58) 늦을: 노(繩)를.

59) ㄱ득앗구나: 가득 앓구나.

60) 석 삼 닷 말 칠 세 오 리: 섬, 말, 세, 리는 곡식을 셈하는 단위.

61) 좃언: 주워서.

62) 비세 ㄱ치: ‘비세’는 제비새를 줄임말 ‘제비새가 울듯이’ 정도의 뜻임.

63) 좃단: 앓다가.

64) 게미가: 개미가.

65) 뽉허게: 꼭하게.

66) 불르난: 밝으니.

67) 멜록허게: 바로 쉽게 뺏어 ‘멜록’은 혀를 잠깐 내밀었다가 집어넣는 모양.

68) 바꾸난: 뺏으니.

69) 누게꽈: 누구입니까.

70) 어실어실: 비 따위가 부슬부슬 오는 모양.

71) 어디 시니: 어디에 있니.

72) 가리천: 뒤집어.

73) 밥자: 밥주걱.

74) 남술: 음식을 조리할 때 젓는 용도의 나무주걱.

75) 뒤악세기: 식되. 집에서 곡식 가루 등을 담아 그 양을 헤아리는 데 쓰는 작은 그릇.

76) 모지락 비치락: 다 닳아빠진 빗자루.

77) 문딱: 모두.

“어명 콩 캄수게~. 콩을 짓입센.”

허난,

“이디 서난⁷⁸⁾ 솔박이영, 작박이영, 밥자영, 국자영, 모지락 비치락은 어디 가시니?”

“몰르쿠다. 흔적 짓입서 .콩 캄수게.”⁷⁹⁾

하도 헤여 가난,

“어명 흔적 손으로라도 짓입서.”

손으로 짓어 가난, 할락궁이가 어머니 흘목을 심언 별경헌⁸⁰⁾ 솟뚜껍더레 꼭허게 놀리멍,

“어머님아, 바른말 험서. 우리 아방 어디 갓우꽈?”

“아이고 나 아덜아, 느네 아방은 제인장제여.”

“우리 아방 ㄱ뜨민 무사 뉘 벌역(罰役) 시깁네까? 영 헤여도 바른말 안허쿠과?”

헤여 가난 어명이~ 바른말 한다.

“아이고 나 아기야, 이 손 노라~. 바른말 허마.”

그 손을 노난~.

“나 아덜아, 니네 아방은 사라도령 사라데왕 서천꽃밭 꽃감관 살레 갓저.”

“어머님아, 나 아버지 좃앙 강 오크메 아버지 갈 떼 본메 본짱⁸¹⁾ 아니 줍테가?”

언듯 생각 허난,

‘상동낭 용열레기 반착 갈라 주엇구나.’

그걸 네어 노난에,

“어머님아~, 느쟁이 범벅⁸²⁾ 험서. 소금 닷 뉘 놓아건~ 범벅을 허건 두 게만 멘들아 줍센.”

허난, 느쟁이 갓다건 소금 닷 뉘 놓안 범벅을 두 게 멘들아 준다. 어명 흘목 심언,

“어머님아, 나 서천꽃밭디 아버지 좃앙 강 오크메 죽을 일이 잇이나, 살 일이 잇어도 나 간 디랑 절데 굴으민 안뉘네다.”

“나 아덜아, 흔저 강 오라~.”

먼 올레 나사난 천리둥이가~ 드리쿵쿵 네쿵쿵 주껍구나예~.

“천리둥아, 나도 늬이 집 종살이, 너도 늬이 집 게로구나.⁸³⁾ 이 범벅 먹으레.”

범벅 하나 던져 주난, 느쟁이 범벅 소금 닷 뉘 난 찬찬헤엇구나.⁸⁴⁾ 그거 먹언 물 먹으레 가 불 떼에 천 리만이 뛰엇구나. 천 리를 뛰영 간 보난 만리둥이가~ 드리쿵쿵 네쿵쿵 주꽈⁸⁵⁾ 가 난,

“아이고 만리둥아, 너도 늬이 집 종 살명 게로구나. 나도 늬이 집 종살이여. 이 느쟁이 범벅 먹으렌.”

주난, 느쟁이 범벅 소금 닷 뉘 노난 먹으난 찬찬헤엇구나. 만 리를 뛰어 갈 떼에 만 리를 뛰엇구나. 가단 보난 발등진⁸⁶⁾ 물 넘엇구나. 발등진 물 넘으난 존등친⁸⁷⁾ 물을 넘어간다. 존등 친 물을 넘으난 목진⁸⁸⁾ 물이 넘엇구나. 서천꽃밭디 가졌구나. 간 보난 궁녀청(宮女廳), 신녀청

78) 서난: 있었던.

79) 캄수게: 타고 있습니다.

80) 별경헌: 별갈게 되어 있는.

81) 본메 본짱: 증거가 되는 물건.

82) 느쟁이 범벅: 메밀을 갈아 가루를 체에 쳐내고 남은 속껍질을 넣어 쏘 음식.

83) 게로구나: 개로구나.

84) 찬찬헤엇구나: 매우 짚구나.

85) 주꽈: 짓어서.

86) 발등진: 발등까지 오는.

87) 존등친: 허리까지 오는.

(侍女廳)에~ 정남청~ 이 세상에서 열다섯, 십오 세 안네 죽영 서천꽃밭 간 아기덜~, 부제집이 살던 애기덜, 은그릇, 늦그릇 밥 먹던 애기덜~, 서천꽃밭디 가난 은데양에, 늦데양에⁸⁹⁾ 물을 지영 서천꽃밭 물을 주난~, 이 아기들 꽃은 번성꽃, 환생꽃, 생불꽃~, 활짝 허게 피어건~ 꽃감관 꽃생인님 꽃빈장⁹⁰⁾ 나오민,

“나 아기덜 착허다. 오늘도 간세⁹¹⁾ 안헤영 꽃밭디 물 잘 찻구나~.”

앞니머리⁹²⁾ 씨러 주멍~ 칭찬 받암구나. 가단 보단 설운 아기덜~, 이 세상에 가난헌 집에 난 아기덜~, 남박세기 밥 먹던 아긴 차롱착에 밥 먹던 아기, 사기그릇에 밥 먹던 애기덜, 서천꽃밭든 가난 꽃밭디 물을 주렌 허난 차롱착에⁹³⁾ 물을 질영⁹⁴⁾ 가다 보민 차롱착에 물이 머리로 이멩이로 양지더레⁹⁵⁾ 옷 앞섭더레 떨어지영 꽃밭에 물을 못 주영 비세⁹⁶⁾ 치 울고, 남박세기, 사기그릇에 물 질영 가당 쉐정당 마정당에⁹⁶⁾ 발 걸려건 남박세기, 사기그릇 깨져 불민 꽃밭디 물 못 주어근에 꽃감관 꽃생인님 꽃빈장 나오랑 보민 이 아기덜 꽃은 검눌꽃이 뒤엇구나. 송남 망뎡이로⁹⁷⁾ 알에 종아리 떼리멍~,

“아침부떠 오후 떼꺼지 서천꽃밭디 물 아니 주고, 세경 바리멍⁹⁸⁾ 물 아니 주엇구나~. 간세 헤엇구나.”⁹⁹⁾

알에 종아리 떼려 가민 관디청이 눈물이며. 서산백옥(西山白玉) ⁹⁶⁾ 양지¹⁰⁰⁾ 주옹아방¹⁰¹⁾ 연주(煉酒) 지듯 비세⁹⁶⁾ 찻¹⁰²⁾ 울영 이 세상더레 돌아상.

“날 나주던 어머니, 날 나주던 아버지 무신 날에 우리덜 납데가?”

가난한 생활헤영 비세⁹⁶⁾ 치 울엄구나. 이 아기덜~ 인정 걸어 두고 서천꽃밭디 큰 쪽냥¹⁰³⁾ 옷 터레 올라 앓앗구나. 상손가락 졸란 연못더레 뿌리난 그 물을 떠단 뿌리난 검눌꽃이 뒤난 꽃감관 꽃생인님,

“이 거 어떻 헌 일이고~?”

아기덜안티 ⁹⁶⁾ 난 아기덜은,

“저 낭 웃터레 봅서. 무지력 실총각이 앓앗우덴.”

허난,

“구신(鬼神)이나? 생인(生人)이나? 구신이건 옥항에 올르고 생인이건 내려오렌.”

헌 건 보난 내려 오랏구나.

“너는 누게가 뒤겻느냐?”

“난 아버지 좃안 오랏우다.”

88) 목진: 목까지 오는.

89) 은데양에 늦데양에: 은대야에 늦대야에.

90) 꽃빈장: 꽃구경.

91) 간세: 게으름.

92) 앞니머리: 앞머리.

93) 차롱착에: 대바구니에. 차롱-착 대나 짜리를 쪼개어 네모나게 걸어 속이 깊숙하고 뚜껑이 있게 만들어 음식 따위를 넣는 그릇.

94) 물을 질영: 물을 길고.

95) 양지더레: 얼굴로.

96) 쉐정당 마정당에: 덩굴에. ‘정당’은 덩덩이덩굴을 뜻함.

97) 송남 망뎡이로: 소나무 막대기로.

98) 세경 바리멍: 열심히 일하지 않고 다른 곳을 구경하며.

99) 간세 헤엇구나: 게으름을 피웠구나.

100) 서산백옥 ⁹⁶⁾ 양지: 서산백옥(西山白玉) 같이 하얀 얼굴.

101) 주옹아방: 향로(香爐).

102) 비세⁹⁶⁾ 찻: ‘비세’는 제비새를 줄임말 ‘제비새가 울듯이’ 정도의 뜻임.

103) 쪽냥: 팽나무.

“너네 아바진 누계가 뉘겿느냐?”

“우리 아버지는 사라도령 사라데왕 서천꽃밭 꽃감관 살레 오랏우다.”

“나가 사라데왕이로구나. 너네 어머이영, 나영 돌아살 때 본메 본짱을 잇인디 그 걸 가전 오랏느냐?”

“가전 오랏우다~.”

상동냥 용얼레기 마치난 맛차구나. 은데양에 물을 떠놓안 서로 손가락을 짚란 물을 피를 노난 피가 합수(合水)가 뉘난,

“분명히 나 아덜이 분명허다. 설운 나 아기가, 니가 이디꺼지 오단 보난 발등진 물, 존등친 물, 목진 물 엇어나?”

“잇입데다.”

“니 나오라부난 니네 어머은 제인장제, 만년장제 집이서 죽언 청뎃섭에 목 걸련~ 신동박¹⁰⁴⁾ 알에 묻어 시난 어머 간 살령 오렌.”

허난,

“살령 오쿠다.”

어머 살리젠 허난 피 오를 꽃, 술 오를 꽃, 오장육부(五臟六腑) 살아날 꽃 꺼꺼간다. 흥남체를 주난 심엇구나~.¹⁰⁵⁾ 웃음 웃을 꽃 꺼꺼 준다. 싸울 꽃을 꺼꺼 준다. 아이고 사람 죽을 꽃을 꺼꺼 주엇구나.

“이거는 어머 살릴 꽃이고, 어머 살리젠 허민 흥남체를 뚜드리른 어머 살아난다 .요 꽃은 갓연 간 제인들어 제인장제, 집이 간 풀어 노렌.”

허난, 내려 오라 간다. 제인들어 제인장제 집에 들어 오난 죽이젠 헤여 가난,

“아이고 요레들 다 읍서. 이레들 다 모입서.”

다 앓앗구나. 웃음 웃을꽃을 헤여 노난 웃음벨탁을¹⁰⁶⁾ 향천데급(仰天大及) 웃음을 웃어 간다.

‘이만 웃으민 뉘엇구나.’

이제랑 싸울꽃을 네어 놓져. 싸울꽃을 네어 노난 니 머리, 나 머리 허운데기 심으멍¹⁰⁷⁾ 이 귀차지,¹⁰⁸⁾ 저 귀차지 떼리멍 싸와간다.

‘요만 싸우민 뉘엇구나.’

멜망꽃을 노난,

‘문딱 다 죽엇구나~.’

메죽은뜰아기¹⁰⁹⁾ 하나만 남안 어디 가신곤 보난 장방¹¹⁰⁾ 알에 곱앗구나.¹¹¹⁾ 장방 알에 간 심어 오란에~,

“이 년아, 저 년아, 우리 어머 죽언 어디 간 던져부렀느냐?”

“아이고 나 오라방, 나 오라방 나아~.”

“나가 누계냐?”

104) 신동박: 동백나무.

105) 심엇구나: 잡앗구나.

106) 웃음벨탁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큰 소리로 웃어가는 모양을.

107) 허운데기 심으멍: 머리카락을 잡으며.

108) 귀차지: 귀와 뺨 부근. 귀싸대기.

109) 메죽은뜰아기: 맨 막내딸.

110) 장방: 방처럼 꾸며 놓은 공간.

111) 곱앗구나: 숨엇구나.

“나 니네 누님이엔.”

허난,

“너네 어머이 우리 집에 오라갓느냐? 너네 아방이 우리 집에 오라갓느냐? 어떻게엔 너영 나영 오누이지간이 뉘 수가 잇갓느냐? 너 죽이기 전에 우리 어멍 죽연 어디 간 던저볼엇느냐? 흔적 바른말 허렌.”

허난~,

“어서 글렌 헤연.”

간 보난 어머니 누운 자린 거미줄이 잇엇구나. 거미줄을 헤쳐 놓고 신동박 알이로구나.¹¹²⁾ 신동박 알에 영 보난 청뎃섭에 목을 걸련 죽엇구나~. 돈딱 헤천 어머니 빼를 즈근즈근 모셔단 놓아건~ 피 오를 꼳, 술 올를꼳, 오장육부 살아날 꼳 놓안,

“어머님~, 이거는 어머님 떼리는 메가 아니고 어머님 살리는 메우다.”

홍남체로 흥번, 두 번, 삼세 번을 떼려 가난 어머님 피 올라간다. 오장육부 살아난다~. 어머니~ 감테 7똥¹¹³⁾ 머리, 절박7찌 허터 논 머리,

“아이고 나 아덜아, 어머니 봄줍이라.¹¹⁴⁾ 너미¹¹⁵⁾ 늦게 자젓구나~.”

“나 어머님 살렸구나. 어머님아 읍서. 나 어머님 누어난 자리에 흑인들사¹¹⁶⁾ 네부리야~. 어머니 본메 본짱 무어보져.”

방울방울 방울떡 일곱 게를 만들아¹¹⁷⁾ 간다. 안팎으론 열네 게 멘들아 놓아 간다. 심방집은 안팎으로 스물으덱 게 방울떡을¹¹⁸⁾ 멘들아 놓고, 어머님 청뎃섭에 목을 걸련 죽엇이난 방울떡 더레 청뎃섭 꽃아 놓고, 신동박 알에 즘을 잠시난~ 어머님 신동박 하나도 본메 본짱 놓앗구나. 본메 본짱 놓아 건 청너울, 백너울¹¹⁹⁾ 벨이¹²⁰⁾ 솜솜,¹²¹⁾ 둘이 솜솜 고리안동벽,¹²²⁾ 자동벽을¹²³⁾ 마련 헤영 죽은긋 혈 뎡 고리동반 하나 허고, 큰데 세왕 스갓(私家) 집이긋 혈 뎡 고리동반을 두 게 멘들고~, 심방집이긋 혈 뎡 안팎으로 고리안동벽 네 게를 멘들앙 두 게는 뎃섭으로 본메를 놓고 두 게는 신동박으로 본메 무는 법이 마련 뉘엇우다.

어머님 살련~ 서천꽃밭디 가난, 어머님은 저싱유모로 인간에 오랑 어멍 베 안에서 간 아기덜, 어멍 베 베꿏디 나오란 흥 설, 두 설, 열다섯, 십오 세 안에 간 아기덜, 서천꽃밭 가민 우는 애기덜~, 안아근에 저싱유모로 키웁고, 우는 애기 젓가슴 헤연 젓도 맥연 키와 주고, 업영도 키와 주고 험셴 헤연, 저싱 유모로 들어 사고 신산만산 할락궁인 아미도령 처소로 들여 낫습네다. 이공서천도산국님 난산국도 풀엇우다. 본산국도 풀엇습네다.

이공본풀이>비념

112) 알이로구나: 아래로구나.

113) 감테 7똥: 감태같은. 해조류의 하나.

114) 봄줍이나: 봄잠이나.

115) 너미: 너무.

116) 흑인들사: 흑인들.

117) 만들아: 만들어.

118) 심방집은 안팎으로 스물으덱 게 방울떡을: 심방집의 큰곳에서 올리는 4개의 고리동반떡을 뜻함.

119) 청너울 백너울: 고리동반을 만들 때 떡과 뎃가지를 너울지로 감싸는 절차. 너울지는 백지에 마름모 꼳의 구멍이 여러 개 뚫어 놓은 모양. 즉 너울지는 원강암이가 죽어 동백나무 아래 거미줄이 쳐 있던 모양을 본 뜬 것.

120) 벨이: 별이.

121) 솜솜: 송송.

122) 고리안동벽: 고리동반 방식 역할을 하는 ‘병개떡’과 방울 모양의 ‘방울떡’ 개로 이루어진 떡.

123) 자동벽: 고리안동벽.

상가지¹²⁴⁾ 꽃 꺼꺼지게 맏서~. 중가지 꽃 꺼꺼지게 맏서. 하가지 꽃 꺼꺼지게 허지 맏서~.
이공서천도산국 연질로 난산국입네다예~.

124) 상가지: 윗가지.